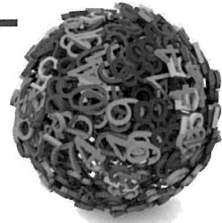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 - BK21 플러스



2013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뉴스는 아마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첨단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창의적 자산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경제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품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계는 아직도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기초과학계로 관심을 좁히면, 기초가 일류를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초과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목표로 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출범과 산하 연구단의 선정이 가장 큰 이슈였다. 선정된 연구단에 대한 큰 기대와 함께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우려와 연구단의 수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배정된 연구단의 숫자 등 큰 틀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기초과학계에서는 기초연구과제 선정률의 급락에 따른 충격과 더불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BK21, 이공계대학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

위의 두 사안에 비해 예산 규모면에서 비교도 안 되지만, 2013년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BK21 플러스 사업이었을 것이다. 1999년에 시작된 BK21 사업은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들이 우수한 대학원생들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BK21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공계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BK21 후속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다행히 올해부터 BK21 플러스 사업이 새로이 시작되었다.

BK21 사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1,2단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공계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나 큰 기여를 하였다. BK21 사업의 순기능을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우수 이공계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있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유학 또는 취업을 선택하던 우수 인력 중 상당수를 국내 대학원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고,
- 이에 따라 국내 대학원 과정이 안정되고, 활발한 연구의 터전으로 정착됨으로써 대학의 연구능력이 괄목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글 김명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mhkimath@snu.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 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대한수학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중간 점검 배양원지

- 국제교류 활성화로 대학원생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 후속세대의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 우수한 고급 연구 인력이 국내에서 훈련되고 배출되어 이들이 다시 국내 학계, 연구소 및 산업계의 주축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해야 하는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 특히, 미래의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최근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생들을 위한 복지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바, BK21 플러스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학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수 대학원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이자 동시에 미래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이다.

지난 7~8개월 동안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들은 BK21 플러스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선정되거나 탈락한 사업단들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몇몇 사업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도 부각되었다. 그 하나는 사업 시행을 조금 더 서둘러서 한 학기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요, 다른 하나는 3년 후가 아니라 2년 후에 평가를 통해 재선정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혹시 대학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다. 특히 BK21 사업의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는 1,2단계 사업의 대표적인 시행착오였음을 기억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2013년 과학기술계의 큰 이슈들을 되돌아보며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필자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하여 생각나는 바를 써보았다. 새해를 기다리며 희망 섞인 바람을 적어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창조의 열쇠이기를, 기초과학연구원이 진정 기초과학계의 박수를 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가 되기를, BK21 플러스 사업이 우리나라 이공계 학문후속세대가 아무런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기를... ①

